



새내기 기자 빠지니 보도기능 ‘구멍’ 그간 중노동 방증...사장 책임지는 모습으로 문제 풀어야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했다. 지난해 입사한 기자 32명이 3일부터 새롭게 파업에 동참하자 이들의 난 자리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기사량이 현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성·속보성 기사가 사라졌다.

이는 새내기 기자들이 수습 신분인 탓에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난 반백일 동안 취재 일선에서 싹틈없이 중노동에 시달렸음을 보여준다.

회사가 경쟁력을 잃어가는데도 경영진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빠른통신 바른뉴스’의 가치는 박정찬 사장의 잇따른 말 뒤집기와 강경대응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기사량 30% 이상 급감

편집국의 기사량은 신입기자들이 파업에 나선 뒤 크게 줄었다.

7일 연합뉴스 통합제작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신입기자 17명이 일손을 놓은 편집국 8개 부서(사진부 제외)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기사 198개를 송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부서들이 지난달 평일(공휴일 제외) 평균 292개를 송고한 것에 비해 32.1% 줄어든 수치다. 파업 직전 1주일 평균치인 572개와 비교하면 기사량이 3분의 1로 쪼그라든 셈이다.

앞서 이달 2일 324개, 3일 273개로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신입기자들이 일을 중단한 것은 3일부터지만, 이들이 전날 작성해놓은 다수의 엠바고 기사가 3일 송고돼 본격적인 영향은 4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일이 다른 날보다 기사량이 적은 금요일이었다

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감소폭은 큰 편이었다. 지난달 금요일 평균 기사량은 254개로 평일 평균치보다 13.0% 적은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 8개 부서는 경제, 문화, 미디어과학, 사회, 산업, 스포츠레저, 정치, 증권부 등이다.

이 중 신입기자 2명이 빠진 경제부는 충격이 가장 컸다. 4일 기사량이 13개에 불과해 지난달 평일 평균치인 36개보다 63.5%나 감소했다. 산업부(-46.0%), 미디어과학부(-39.4%) 등 경제 관련 부서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졌다.

문화부(-31.3%), 사회부(-30.5%) 등도 기사량이 30% 이상 줄었다.

단, 파업 비참여 인원이 비교적 많은 정치부는 새내기 기자 3명이 일을 중단했는데도 기사가 평일보다 7.3% 감소하는 데 그쳤다.

13개 취재본부를 포함한 지방국은 4일 현재 기사량이 78개로, 지난달 평일 평균치(126개)보다 37.8% 줄었다.

편집국, 지방국, 국제국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기사량(연합인포맥스 제외)은 1천816개였다. 파업 전 3천개 이상, 신입기자들의 파업 참여 전 2천개 이상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

현장기사 누락·속보기능 약화

갑자기 줄어든 기사량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사 질의 저하다. 현장 기사가 사라지고 긴급 기사를 타사보다 수십분이나 늦게 전하는 불상사도 발생하고 있다.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인근 공원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대학

생을 흥기로 잔인하게 죽여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연합뉴스에서 단 한 건도 보도되지 못했다.

다른 언론사들이 2일 피의자 3명 중 2명 검거, 3일 공범 검거, 4일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과정을 중계하듯 보도했고, 인터넷 ‘사령카페’등 범행 배경에 관한 해설 기사를 쏟아낸 것과 대조된다.

3일 오전엔 서대문경찰서의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이 있었지만 이마저 기사화하지 못했다. 초기 보도 기회를 놓친 데다 신입기자들이 자리를 비워 현장에 파견할 인력마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일 열렸던 김연아 아이스쇼도 처리되지 않았다. 김연아가 9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 많은 이의 관심을 끈 행사였다. 연합뉴스는 예고 기사를 3월 중순부터 여섯 차례나 내보내고선 정작 행사 기사를 처리하지 못했다. 과거엔 아이스쇼 현장에 기자를 보내 기사가 스트, 인터뷰 등 2~3건을 송고했다.

‘뒷북’ 속보도 왕왕 있었다.

솔로몬을 비롯한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를 알리는 긴급기사가 6일 오전 7시 정각에 송고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발 소식이 인터넷에 처음 전해진 것은 이보다 훨씬 이른 오전 6시10분께였다. 속보 경쟁에 밀린 것은 역시 현장을 챙길 기자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전 7시는 이미 경제지들이 해설 기사까지 내보낸 후였다.

지방국과 국제국의 사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취재본부에서는 사건·사고 기사의 씨가 말랐고, 국제뉴스부에서는 내근 누락 기사가 급증했다.

보도기능에 이같이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은 50일간 맨몸으로 취재 현장을 지켰던 신입기자들의 노동강도를 증명한다.

한 신입기자는 “휴일도 없고 화장실 갈 여유도 없이 중노동을 했다. 공정보도를 지키려고 파업에 동참한 것은 후회하지 않지만, 우리의 빈자리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작성장을 들여다보는 연합뉴스 사원들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한 조합원은 “우리가 곧 회사의 주인인데 회사가 망가지고 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라면서도 “당장 누락기사 한 건 더 챙기는 것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공정보도의 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박 사장과 경영진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과거 잘못 반성·평가 조치 필요” vs 사장 “파업 결의 단단해 대화 못했다”

박정찬 사장은 연합뉴스 조합원에게 “미안하고 감사한다”고 했다. 예의 ‘진정성’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파업이 길어지고 있어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간 대화에 나서지 않은 것은 파업 결의가 너무나 단단해서라는 ‘이상한’ 이유를 들었다.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첩경은 과거 잘못을 반성·정리·평가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박 사장에 촉구했다.

박 사장은 7일 오전 9시9분 조합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본사 7층 복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종종걸음으로 사장실로 향했던 예전과 달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박 사장은 잠시 멈춰 서서 조합원들을 둘러보고선 유리문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5분여간 말을 이어갔다. 박 사장은 “하루에 몇번씩 사태가 이 지경으로 온 것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제 불찰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머리를 꺼내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일일이 언급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욕심덩어리’, ‘악마’라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변했어’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사장은 “악마의 모습으로, 고집덩어리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이 회사를 책임지는 최고경영자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인의 박정찬과 공인 박정찬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의 선배로서 34년간 현장에서 일하고, 발로 뛰고, 선배를 욕하고 후배를 다그치고 살았다. 그렇게 별로 변한 것이 없다”면서 “최고경영자로서, 공영 언론의 장으로서 박정찬은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럼에도 “제 진정성은 안 변했다”고 강조했다.

세대간 생각의 차이도 거론했다.

박 사장은 “세대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배들이 후배들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다”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독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다”며 서로간 이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방치되고, 버려지고, 공허한 채 계속 갈 수 없다”며 “주총에서 사장으로 선출되자마자 회사의 희생을 막고 빨리 어떤 식으로 수습해야겠다고 바보처럼 던졌던

마음 그대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대화해야 한다”고 힘을 주며 말했다.

그간 노조와 대화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선 “공병설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 지도부의 파업에 대한 결의가 너무 단단했다. 아직까지도”라며 “밀에서 자주 만나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렇게 만났을 때엔 더 수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박 사장은 “(파업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면서 “여러분 미안하고 감사합니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 위원장은 “사태를 풀 의지가 있는지 보여달라”며 사장실로 들어가는 박 사장을 불러세웠다.

공 위원장은 “연합뉴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푸는 길은 간단하다.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분명한 조치, 의지를 보여야 풀린다”고 현 사태의 해법을 제



안했다. 공 위원장은 “파업 들어가기 전 명칭하고 의지가 없어 보였던 연합뉴스 사원들이 들고 있어났다”며 “우린 많이 참고 많이 기다렸다”고 전했다. 박 사장은 이에 대해 “명칭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다. 제가 명칭하지 않았으면 사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명칭하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합뉴스가) 다른 데와 다르다는 생각, 다른 선후배와 다르다는 생각이 없었으면 정면 대치하고 원칙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늘의 파업 키워드*
“털”

파업 중에도 '털'은 자란다!
남 조합원의 파업 동력은 수염에서 나오고,
여 조합원의 바뀐 헤어스타일이 집회 분위기를 바꾼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曰〉
"노조 집행부 몇명이 화끈하게 삭발식하고 끝나는 파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각자의 책임을 나눠 질 때 파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배상희 조합원의 '털' (인천취재본부)〉
다짜고짜 미용실을 찾아가 김옥빈 느낌의 숏컷을 요구했다는 배 조합원. 파업체조 무대에서는 거침없는 랩을 선보인 그녀였지만, 이제는 사방사방한 '인천의 김옥빈'으로 완벽 변신한 배 조합원은 욕심쟁이 우후훗~

〈라인이 바라본 공병설 노조위원장의 '털'〉
김미화 "아이구! 위원장님 벌써 삭발하신거예요?"

〈한지훈 조합원의 '털' (증권부)〉
파업의 의지를 다져보고자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조합원. 동기들과 선·후배들로부터 '구한말 지식인' '갑오농민전쟁 전봉준 혁명가'라는 호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않고 수염을 약 0.5cm까지 성장시키는 데 성공. 거뭇거뭇한 수염은 최근 토마토를 자르다가 베인 손가락에 두른 붕대와 함께 터프가이 이미지를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공여함. 그러나 갑작스러운 심경변화로 수염을 말끔하게 제거. 아이유와 수지를 좋아하던 순수가이 본연의 모습으로 컴백.

〈김연숙 조합원의 '털' (정치부)〉
파업이 시작되자 난생 처음 네일아트에 도전. 동기들을 놀라게 했던 김 조합원이 요즘 유행하는 발롱팜+긴 단발의 헤어스타일로 한껏 아름다움을 극대화. 국방부의 여신으로 자리매김 할 기세다. (김 조합원의 모친은 '파업하니 딸이 날라리가 됐다'며 걱정을 금치 못했으나 본인은 만족했다는 후문.)

“분노하라! 연합뉴스”